

영화와 문학 속의 한국과학기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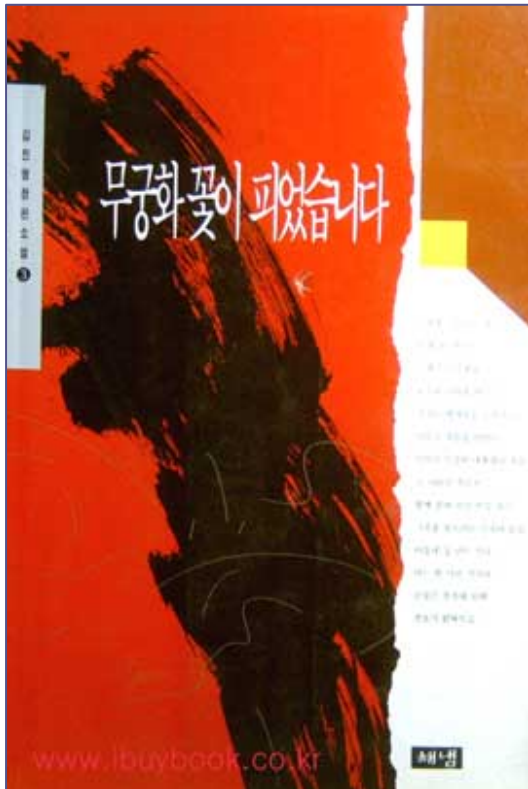
공석하 (1993)



김진명 (1994)



정진우 감독 (1995)



김진명 (1994)

“그런데 미국이 이용후 박사를 죽여서 얻는 건 뭡까요?”

“한국의 핵무기개발을 저지시키려는 것이었을 거요.”

“이 박사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으로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박사는 한국 핵개발의 심장이었을 거요.”

이 박사가 그렇게도 대단한 분입니까?”

“그렇소.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전반의 물리학을 좌지우지했다면, 이용후 박사는 20세기 후반 물리학을 좌지우지하는 물리학자라고들 했소.”



“이박사님, 그래 어찌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제 몸 속에 넣어 주십시오.”

휘소는 투명 용지에 쓴 가로 10여 센티, 세로 4센티 정도의 문서를 내밀었다. 이것은 휘소가 따로 정리한 것을 다시 1/50로 축소하여 만든 정밀한 계산서였다.

...

박대통령은 이휘소의 다리 속에서 빼어낸, 피가 번진 문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이박사..... 고맙소..... 이박사.”

공석하, <소설 이휘소> (1993)

'이휘소-혹은 벤자민 리'

1977년

시카고 한인 병원

김완일 원장과

이휘소 교수가

장실 문 잠그고 단둘이었다

...

다리 살을 베어

세로 4센티

가로 10센티의 그 살 속에

50분의 1 축소한 투명용지 서류를 넣고

봉합했다

수술 끝났다

...

헬리콥터로 이 교수를 태우고

청와대로 갔다

박정희 대통령과 지하실로 갔다

대기하고 있던 의사가

이교수 다리 수술

피 묻은 투명용지 문서를 꺼냈다

단거리 대전차 로켓

다연발 로켓

장거리 미사일 제조원리 중거리 로켓

문서였다

대통령이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소 이박사

천만에요 조국을 위한 일이라면.....

...

페르미 연구소 핵물리학의 권위 이휘소

미국 안보의 요인 이휘소

그가 미합중국 국가 기밀문서서 반출을

마치고 돌아갔다

1977년 이교수는 80번 프리웨이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FBI CIA 요원이 현장을 포위했다

의문이 많았다 미국이 24시간 감시하는

사람의 죽음이었다

...



강주상 (2006)

- “이회소 핵개발 연루설”을 깨기 위한 노력
 - 가족들의 명예훼손 소송 (1994)
 - 제자들의 노력
 - 2010. 4.30-5.1. KBS 다큐멘터리 “이회소의 진실”
- 하지만...
 - KBS 여론 조사 결과: “교통사고로 위장된 의문의 죽음” (65%)